

[수능특강]

01. 공무도하가(백수 광부의 아내)
02. 모죽지랑가(득오)
03. 가시리(작자 미상)
04. 정석가(작자 미상)
05. 몽천요(윤선도)
06. 꿈으로 차사를 삼아~(이정보)
07. 방옹시여(신흠)
08. 우국가(이덕일)
09. 거창가(작자 미상)
10. 향산별곡(작자 미상)
11. 규원가(허난설헌)
12. 한양가(한산 거사)
13. 수심가(작자 미상)
14. 영산가(작자 미상)
15. 소춘향가(작자 미상)
16. 설중방우인불우(이규보)
17. 자술(이옥봉)
18. 처용가-향가
19. 고려가요(작자 미상)

[수능완성]

20. 이이, 「매초명월」
21. 정훈, 「탄궁가」
22. 충담사, 「찬기파랑가」
23. 정도전, 「신도가」
24. 송순, 「면양정가」
25. 이신의, 「사우가」
26. 맹사성, 「강호사시가」
27. 신흠, 「방옹시여」

## 01 공무도하가(백수 광부의 아내)

公無渡河 (공무도하)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공경도하) 임은 그예 물을 건너고 말았네  
 墮河而死 (타하이사)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當奈公何 (당내공하) 임이여 이를 어이할꼬.

## 02 모죽지랑가(득오)

간봄 그리매 (간 봄 그리워함애)  
 모든 것사 우리 시름 (모든 것이 서러워 시름하는데)  
 아롬 나토샤온 즈시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살쫘디니저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하옵내다)  
 눈 돌칠 스이에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맞보옵디지소리 (만나 뵈도록 하리이다)  
 郎이야 그릴 무스미녀올 길 (낭이여 그리운 마음의 가는 길이)

다북~~무~~솔히 잘 밤 이시리 (다북~~쪽~~ 우거진 마을에 잘 밤이 있으리이까)

↳ 현실에서의 이상적 세계, 저승. 죽지랑을 그리워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믿음과 의지

## 3. 가시리(작자 미상)

가시리가시리잇고 나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렵니까)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하고 (나더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버리고 가십니까)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누는 (붙잡아두고 싶지만)  
 선흐면 아니올세라 (서운하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워)  
 ↳ 주체 : 임 / 임을 붙잡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이유 - 소극적 현실 대응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盛代)

셜온님 보내옵노니 나는 (서러운 님 보내옵나니)  
 '셜온'의 주제는 '임'과 '화자'로 각각 해석될 수 있음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가시자마자 돌아오소서)  
 ↳ 임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남  
 위 증즐가 대평성디(太平盛代)

#### 04. 정석가(작자 미상)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왕성대(先王聖代)에 노니<sup>ㄴ</sup>와지이다.

삭삭기 세몰애 별헤 '나논'(여음)  
삭삭기 세몰애 별헤 나논  
구운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有德)ᄃ신 님들 여히<sup>ㄴ</sup>와지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스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희 접두(接柱)ᄃ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  
유덕(有德)ᄃ신 님 여히<sup>ㄴ</sup>와지이다.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논  
므쇠로 털릭을 몰아 나논  
털스(鐵絲)로 주름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혈어시아  
그 오시 다 혈어시아  
유덕(有德)ᄃ신 님 여히<sup>ㄴ</sup>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털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쇠디털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털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ᄃ신 님 여히<sup>ㄴ</sup>와지이다.

징이여 돌이여 (임금님이) 지금에 (우리 앞에) 계시웁니다.  
징이여 돌이여 지금에 계시웁니다.  
태평성대에 노닐고 싶습니다.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되를 심습니다.  
그 밤이 움이 돌아 짝이 나야  
그 밤이 움이 돌아 짝이 나야  
덕(德)이 있는 임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그 꽃을) 바위 위에 접붙입니다.  
꽃이 세 묶음이 피어야만  
꽃이 세 묶음이 피어야만  
유덕하신 임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무쇠로 철릭(관복)을 말아  
무쇠로 철릭(관복)을 말아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혈어야만  
그 옷이 다 혈어야만  
유덕하신 임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무쇠로 큰 소를 주조하여다가  
무쇠로 큰 소를 주조하여다가  
쇠나무 산에 놓습니다  
그 소가 쇠풀을 다 먹어야  
그 소가 쇠풀을 다 먹어야만  
유덕하신 임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헛든 그츠리잇가  
즈믄 히를 외오곰[1] 녀신들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을 꿰고 있는)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천 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임과의 사이의)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 05. 몽천요(윤선도)

상해런가(평소인가) 꿈이런가 백옥경에 올라가니  
옥황은 반기시나 군선(여러 신선)이 꺼리나다.  
두어라 오호연월(아름다운 자연풍경)이 내 분일시 올탸다

생시런가 꿈이런가 천상에 올라가니  
옥황은 반기시나 못 신선이 꺼리는구나.  
두어라 아름다운 자연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 나의 분수에 옳도다.  
↳ 제1수 : 임금과의 만남과 안분지족의 추구

풋잡에 꿈을 꾸어 십이루에 들어가니  
옥황은 웃으시되 군선이 꾸짖는다.  
어즈버 백만억창생을 어니 곁에 무르리

풋잡에 꿈을 꾸어 천상 십이루에 들어가니  
옥황은 웃으시되 못 신성이 꾸짖는구나.  
어즈버 백만 억 창생의 일을 어느 사이에 물어보리.  
↳ 제2수 : 백성을 향한 선정(善政)의 포부와 좌절

하늘이 이저신 제(기울어졌을 때) 무슨 술로 기워낸고  
백옥루 중수할 제 엇던 바치(어떤 장인, 목수) 일워낸고  
옥황과 사뢰보자 하더니 다 못하여 오나다.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워 냈는고?  
백옥루 중수할 때 어떤 목수가 이루어 냈는고?  
옥황께 여쭙보자 하였더니 다 못하여 왔도다.  
↳ 제3수 :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 06.꿈으로 차사를 삼아~(이정보)

꿈으로 차사(差使)를 삼아 먼 데 님 오게 하면  
비록 천 리라도 순식(瞬息)에 오련마는  
그 님도 님 둔 님이니 올동말동하여라.

꿈으로 차사를 삼아 먼 데 님 오게 하면  
비록 천 리라도 순식간에 오련마는  
그 님도 님을 둔 님이니 올동말동하여라.

07. 방옹시여(신흙)

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무척세라  
 柴扉를 여지 마라 날 초즈리 뉘 이시리  
 밤중만 一片明月이 괴벗인가 하노라 (1수)

草木이 다 埋沒한 제 松竹만 푸르렀다  
 風霜 섯거친 제 네 무슨일 혼자 푸른  
 두어라 내 性이어니 무려 무슨허리 (3수)

어제밤 눈은 後에 돌이조차 비최었다  
 눈後 돌빛치 물그미 그지업다  
 엇더타 天末浮雲은 오락가락 하노라 (6수)

헛가래 기나자르나 기동이 기우나트나  
 數間茅屋을 자근줄 웃지마라  
 어즈버 滿山蘿月이 다 내거신가 하노라 (8수)

是非 업슨後 |라 榮辱이 다不關타  
 琴書를 흐튼後에 이 몸이 閑暇하다  
 白鷗 |야 機事를 니즘은 너와 낸가 하노라 (14수)

寒食 비온밤의 봄빛치 다 퍼졌다  
 無情한 花柳도 재를아라 피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오논고 (17수)

산골 마을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사립문을 열지 마라 날 찾을 이 누가 있겠느냐?  
 밤중에 한 조각 밝은 달이 내 벗인가 하노라  
 ↳시비를 달고 달을 벗하며 지내는 삶

초목이 다 눈에 덮여 있을 때 송죽만 푸르렀다  
 모진 바람과 된서리가 섞어친 제 네 무슨 일 혼자 푸르느냐  
 두어라 저마다의 본성이니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송죽의 푸름에 대한 예찬

어젯밤 눈 온 다음 달이 좇아 비치었다  
 눈 온 후 달빛이 맑음이 그지없다  
 어찌하여 하늘 끝 구름은 오락가락하노라  
 ↳겨울밤 달빛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과 혼탁한 세상에 대한 근심

서까래 길거나 짧으나 기동이 기울었거나 틀어졌거나  
 수간모옥이 작다고 비웃지 마라  
 어즈버 산에 가득 자란 덩굴풀 사이로 보는 달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안분지족(安分知足)하면서 자연 속에 사는 자부심

말다툼 없는 후(後)이라 명예와 치욕이 다 상관없다  
 거문고와 책을 다 던진 다음에 이 몸이 한가하다  
 갈매기야 욕심을 잊음은 너와 낸가 하노라  
 ↳세속을 떠나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삶

한식날 밤비에 산과 들에 봄빛이 가득하다  
 아무런 뜻이 없는 꽃과 버들도 꽃 필 때를 알고서 피었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임은 한 번 떠나가시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는가?  
 ↳봄날에 더욱 깊어지는 임을 향한 원망

窓밖기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보니  
蕙蘭蹊徑에 落葉은 므스일고  
어즈버 有限 肝腸이 다 그출가 亨노라 (19수)

꽃지고 속닙나니 時節도 變亨거다  
풀소개 푸른 버레 나뉘되야 々다난다  
뉘라셔 造化를 자바 千變萬化亨논고 (26수)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할샤  
닐러 다 못닐러 불려나 푸듯든가  
眞實로 풀릴거시면은 나도 불려 보리라 (29수)

창밖이 워석버석해서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오솔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어즈버 원통한 마음이 애간장이 끊어질 듯하구나.  
↳낙엽 소리로 촉발된 임을 향한 그리움

꽃 지고 속잎 나니 계절도 바뀌었다.  
풀 속에 푸른 벌레 나비 되어 날아다닌다.  
뉘라셔 조화를 부리어 천만가지로 변화하는지 모르겠다.  
↳계절의 변화에서 느끼는 자연의 신비와 경이로움

노래를 만든 사람 시름도 많기도 많구나  
말로 하려 해도 다 못 하여 노래 불려서 풀었던가  
진실(眞實)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려 보리라  
↳노래를 불려 풀고 싶은 깊은 시름

## 08. 우국가(이덕일)

학문(學文)을 후려 치우고 반무(反武)\*를 한 뜻은  
삼척검(三尺劍) 둘러메고 진심보국(盡心報國)하려 했더니  
한 가지 일도 한 것이 없으니 눈물겨워 하노라 <제1수>

나라에 못 잇을 것은 이 밖에 다시없다  
의관문물(衣冠文物)을 이렇도록 더럽혔는고  
이 원수(怨讎) 못내 갚을까 칼만 갈고 있노라 <제3수>

어와 서러운지고 생각거든 서러운지고  
국가 간위(艱危)\*를 알 이 없어 서러운지고  
아무나 이 간위 알아 구중천(九重天)\*에 사뢰소서 <제6수>

이는 저 외다 하고 저는 이 외다 하니  
매일에 하는 일이 이 싸움뿐이로다  
이 중에 고립무조(孤立無助)는 임이신가 하노라 <제14수>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움 말리소서  
지공무사(至公無私)\*하게 말리소서 말리소서  
진실로 말리고 말리시면 탕탕평평(蕩蕩平平)\*하리이다 <제16수>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  
집만 돌아보고 나랏일 아니 하네  
하다가 명당(明堂)이 기울면 어느 집이 굳으리오 <제26수>

공명(功名)을 원(願)찮거든 부귀(富貴)인들 바랄소냐  
일간모옥(一間茅屋)에 고초(苦楚)히 혼자 앉아  
밤낮의 우국상시(憂國傷時)를 못내 설워하노라 <제28수>

- 성격 : 우국적, 현실 비판적, 직설적
- 주제 : 당쟁을 일삼는 대신들에 대한 비판과 나라에 대한 걱정
- 특징 :
  - ①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짐.
  - ② 나라에 대한 걱정과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남.
  - ③ 화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구국의 방안을 제시함

\*반무: 문관이 무관이 됨.

\*간위: 어려움과 위기.

\*구중천: 하늘을 아홉 방위로 나누어 이르는 말. 여기서는 '임금'을 뜻함.

\*지공무사: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음.

\*탕탕평평: 싸움, 시비, 논쟁 따위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공평함.

## 09. 거창가(작자 미상)

거창지경(居昌之境) 둘러보니 삼가 합천 안의 지례  
네 읍 중에 처하여서 매년 결복(結卜)\* 상정(詳定)할 제  
타읍은 열한두 냥 민간에 출질(出秩)하고  
거창은 십육칠 냥 해마다 가증(加增)하네  
타읍도 목상납(木上納)\*을 호조혜청(戶曹惠廳) 봉상하고  
본 읍도 목상납을 호조혜청 봉상하니  
다 같은 왕민(王民)으로 왕세(王稅)를 같이하되  
어찌타 우리 거창 사오 냥씩 가증하노  
더구나 원통할사 백사장의 결복이라  
근래에 낙강성천(落江成川) 구산(丘山)같이 쌓였는데\*  
절통타 우리 백성 재\* 한 짐 못 먹어라  
재결(災結)\*에 회감(會減)\*함은 묘당(廟堂) 처분(處分) 있건마는  
묘당 회감 저 재결을 중간투식(中間偷食) 뉘 하시고  
가포(價布)\* 중 악생포(樂生布)는 제일 심한 가포라  
삼사 년 내려오며 탐학(貪虐)이 더욱 심하다  
악생포 한 당번(當番)을 한 고을을 엮어매어 침탈하며  
많으면 일이백 냥 적으면 칠팔십 냥  
모야무지(暮夜無知) 남모르게 책방(冊房)으로 들어가니  
이 가포 한 당번에 몇몇이 탕산(蕩產)하고  
그 남은 많은 가포 수록군병(水陸軍兵) 던져두고  
선무포 제번포며 인리포 노령포라  
명색(名色) 다른 저 가포를 백 가지로 침책(侵責)\*하니  
김(金)담사리 박(朴)담사리 큰 애기며 작은 애기\*  
어서 가고 바빠 가자 향작청(鄉作廳)에 잡혔단다  
앞마을에 짓는 개는 아전 보고 꼬리 치며

뒷집에 우는 아기 아전 왔다 우지 마라  
일신양역 원통 중에 황구첨정(黃口簽丁) 가련하다  
생민가포(生民價布) 던져두고 백골징포(白骨徵布) 무슨 일고  
황산고총(荒山古塚) 노방강시(路傍僵屍)\* 네 신세 불쌍하다  
너 죽은 지 몇 해관대 가포 돈이 어인 일고  
관문(關門) 앞에 저 송장은 죽음도 원통커든  
죽은 송장 다시 파서 백골징포 더욱 설다  
가포탈\*할 제 원정(冤情)을 호령하여 쫓아내니  
월락삼경(月落三更) 깊은 밤과 천음우습(天陰雨霽) 슬픈 밤에  
원통타 우는 소리 동헌(東軒) 하늘 함께 운다  
청산(靑山) 백수(白首) 우는 과부 그대 울음 처량하다  
엄동설한 긴긴 밤에 독수공방 더욱 설다  
남산(南山)에 농사지은 밭을 어느 장부 갈아 주며  
동원(東園)에 익은 술을 뉘 데리고 화답(和答)하고  
어린 자식 아비 불러 어미 간장 녹여 낸다  
엽엽히 우는 자식 배고파 설워하며  
가장(家長) 생각 설운 중에 죽은 가장 가포 난다  
흉악하다 저 주인 놈 과부 손목 끌어내어  
가포 돈 던져두고 차사(差使)의 관습 먼저 찾아  
필필이 짜는 베를 탈취하여 가단 말가

---중략---

청천(靑天)의 외기러기 어디로 향하느냐  
 소상강을 바라느냐 동정호를 향하느냐  
 북해상에 높이 올라 상림원(上林園)\*을 향하거든  
 구름 없는 하늘 종이에 세세민정(細細民情) 그려다가  
 인정전 임금 앞에 나는 듯이 올려다가  
 우리 임금 보신 후에 별반(別般) 처분 내리소서  
 더디도다 더디도다 암행어사 더디도다  
 바라고 바라나니 금부도사(禁府都事) 내리나니  
 자루 짚에 잡아다가 길가에 버리소서  
 어와 백성들이 연후(然後)의 태평세계(太平世界)  
 만세만세 억만세로 여민동락(與民同樂)하오리라

- 성격 : 현실 비판적, 저항적
- 주제 :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 특징 :
  - ① 직유법, 의인법 등 다양한 수사법이 활용됨.
  - ②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고발함.
  - ③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임금에게 호소함.
- 구성 :
  - 서사: 고통스러운 거창의 상황
  - 본사: 수령 이재가에 대한 규탄과 거창의 비참한 현실
  - 결사: 임금에게 거창을 구제해 줄 것을 호소

- \*결복: 조선 시대에, 토지세 징수의 기준이 되는 논밭의 면적에 매기던 단위인 결, 짐, 뭇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목상납: 나라에 바치던 세금이나 물건을 무명이나 광목으로 납부하던 일.
- \*낙강성천 구산같이 쌓였는데: 강물이 범람하여 논밭을 덮어 버린 모래가 언덕과 산처럼 쌓여 있다는 말.
- \*재: 논밭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받게 되는 조세 감면의 혜택.
- \*재결: 가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재해를 입은 논밭.
- \*회감: 서로 주고받을 것을 셈 쳐 보고 남은 것을 셈함.
- \*가포: 조선 시대에, 역(役)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그 대신으로 군포에 준하여 바치던 베.
- \*침책: 조선 시대에, 물품을 거두어들일 때 트집을 잡아 술이나 돈을 청하던 일.
- \*김담사리 박담사리 큰 얘기며 작은 얘기: 가짜 이름과 거짓 기록을 가리키는 말.
- \*노방강시: 길가에서 얼어 죽은 시체.
- \*가포탈: 수령과 아전들이 백성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받아내어 포탈 하던 일.
- \*상림원: 천자의 동산 이름으로, 여기서는 임금이 있는 궁궐을 말함.

## 10. 향산별곡(작자 미상)

문무 양반 목민(牧民) 중의 학민(虐民)\*하는 원님네들  
이내 말씀 배척 말고 마음 새겨들어 보소  
성(城)안에서 들을 제는 총명인자(聰明仁慈)하다더니  
근무지에 도착해서 어이 저리 다르시고  
내려갈 제 돈 썼는가 들어갈 제 돈 썼는가  
기생에 빠졌는가 간사한 아전과 함께인가  
술에 삭았는가 고량진미에 막혔는가  
있던 총명 어디 가고 없던 어두움 내었으며  
있던 인자 어디 가고 없던 포악 내었는고  
내 모를가 자네 일을 자네 일을 나는 아내  
착한 본성 잃은 속에 자기 욕심 길러 내어  
사단지목(四端之目)\* 다 모르고 욕심 있는 마음뿐이로다  
선사양전(善事兩銓)\* 그만하고 자목백성(字牧百姓)\*하여 보소

- 성격 : 비판적
- 주제 :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 특징 :
  - ① 부정적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난다.
  - ② 대구법을 활용하여 담학을 일삼는 관리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 ③ 대조적 이미지와 도치법을 활용하여 비판 의식을 강조한다.

\*학민: 백성을 가혹하게 다룸.

\*사단지목: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네 가지 마음.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이룸.

\*선사양전: 이조 전랑과 호조 전랑을 잘 섬김.

\*자목백성: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아 다스림을 이르던 말.

## 11. 규원가(허난설헌)

[서사] 옛그제까지 젊었더니 어찌 벌써 다 늙어 버렸는가? / 어릴 적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말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 늙어서 서러운 사연을 말하자니 목이 멘다.

[본사 1] 부모님이 날 낳아 몹시 고생하여 이내 몸 길러 낼 때 /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는 바라지 못해도 훌륭한 남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바랐는데, / 전쟁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이자 부부의 인연으로, / 장안의 호탕하게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 시집간 뒤 남편 시중들기를 살얼음 디디듯 조심하였다.

[본사 2] 열다섯, 열여섯 살을 겨우 지나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니, / 이 모습과 이 태도로 평생 동안 변함없기를 바랐더니, / 세월이 빨리 흐르고 조물주가 몹시 시기하여 / 봄바람 가을 물이 벼들의 울에 복이 지나가듯 빨리 지나 / 고운 머리채와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어디에 두고 보기 싫은 모습이 되었구나. / 내 얼굴을 내가 보니 어느 임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본사 3] 삼삼오오 어울려 다니는 기생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인가? /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다가 / 좋은 말과 채찍으로 어디 어디 머물며 노니는고? / 원근의 지리를 모르는데 임의 소식을 어찌 알 수 있으랴.

[본사 4] 인연을 끊으려 한들 임에 대한 생각이 없겠는가? / 임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지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 하루 열두 때 길기도 길고, 한 달 서른 날 지루하기만 하다. / 창밖에 심은 매화는 몇 번이나 피고 졌는가? / 겨울밤 차고 찬 때 자국눈 섞어 내리고, / 여름날 길고 긴 때 굶은비는 무슨 일인가? / 아름다운 봄철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풍경을 보아도 아무 감흥이 없다. / 가을 달이 방에 비치고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울 때, /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에 헛되이 생각만 많다. /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조차 어렵구나.

[본사 5] 돌이켜 여러 가지 일을 곰곰이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 어찌할 것인가? / 청사초롱을 돌려 놓고 거문고를 비스듬히 안아 / 벽련화 한 곡조를 시름에 섞어 연주하니, / 소상강 밤비에 뗏잎 소리 섞여 들리는 듯, / 망주석에 천년 만에 찾아온 이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 / 고운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가락이 아직 남아 있건마는, / 연꽃 무늬가 있는 휘장을 친 방 안이 텅 비어 있으니 누구의 귀에 들릴 것인가? / 마음속이 뒤틀리어 굵이굵이 끊어졌도다.

[결사]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서나 입을 보고자 하니, / 바람에 지는 잎과 풀속에서 우는 벌레는, / 무슨 일로 원수가 되어 잠마저 깨우는가? / 하늘의 견우성과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을지라도, / 칠월 칠석 일 년에 한 번씩은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 우리 임 가신 후로는 무슨 장애물이 가렸기에, / 오든지 가든지 소식마저 끊겼는고? / 난간에 기대어 서서 임 가신 데를 바라보니, / 풀 끝에 이슬이 맺혀 있고 저녁 구름 지나갈 때, / 대나무 숲 푸른 곳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 / 나처럼 운명이 기구한 사람이 또 있을까? /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 듯 말 듯 하여라.

[서사] 서러운 회포를 적는 감회

- [본사] 본사 1: 젊은 시절과 결혼에 대한 환상
- 본사 2: 늙고 외로운 신세에 대한 한탄
- 본사 3: 남편에 대한 원망
- 본사 4: 계절 변화에 따른 남편에 대한 그리움
- 본사 5: 거문고를 타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한

[결사] 입을 기다리며 기구한 운명을 한탄함.

①엿그제 저멋더니~목이 멘다.: 늙음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작품 전체에 나타난 화자의 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②三生(삼생)의 怨業(원업)이오 月下(월하)의 緣分(연분)으로.: 화자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운명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 는 구절로, 그 밑바탕에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 깔려 있다.

③三三五五(삼삼오오) 冶遊園(야유원)의~더욱 알랴.: 기생집에 출입하며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으로 인한 괴로움과 원망의 정서가 담겨 있다.

④겨울밤 차고~험만 만타.: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여인의 외로움과 남편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을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압축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⑤靑燈(청등)을 돌려~섯거 타니.: 등불을 돌려 켜 놓고 거문고를 타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달래 보기 위한 행동이다.

⑥瀟湘夜雨(소상 야우)의 뗏소리 섯도는 듯.: 소상 팔경의 하나인 소상강에 밤비가 내릴 때 뗏잎 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과 같이 처량하고 구슬픈 심경을 표현한 것이다.

⑦찰하리 잠을~잠조차 깨오는다.: ‘꿈’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현실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이나 ‘풀속에서 우는 짐승’은 꿈속에서의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⑧天上(천상)의 牽牛織女(견우직녀)~消息(소식)조차 끄쳤는고.: 견우와 직녀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존재이다. 임과의 만남이 기약이 없는 화자와는 달리, 견우와 직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만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